

문제 1

1. 비교 아주 완벽합니다. 제시문의 내용을 낭비의 제거 가능성, 유용성으로 비교한 점은 내용상으로도 깔끔하지만 형식적으로도 대칭적인 모습을 보여 글의 가독성을 높이고 단순한 요약이 아니기에 좋은 점수를 획득할 것이에요.
2. 하지만 4~5문단에서 (다)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데, 이 때 제시문 (다)에 대한 설명을 낭비의 관점에서 먼저 해주고, 분석이 이루어져야 자연스러운 논리 전개가 될 것입니다. 아쉽네요.
3. 그리고 대응에서도 제시문 (가)를 통해 원근단축과 변칙의 과정을 2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데 변칙의 대응이 존재하지 않아 아쉬워요. 대칭성 부족이거든요.
4. 하지만 2~3번의 지적은 큰 감점 요소가 아니며, 1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가 아주 탁월하기에 문제 1번만 본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 답안입니다.

문제 2

1. “그리고 제시문 (라)의 실험 결과는 최초 공개시 희미한 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공개시간이 길수록 사건을 정확히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.”
1문단에서 (라)의 실험 결과를 사용해서 설계하려는 시도는 좋으나, 이는 표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. 표를 해석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아니에요. 특별한 결론이 아니고, 이는 표 해석의 실패로 잘못된 설계과정이 나타날 것을 암시합니다.
2. 제시문 (라)에서 ‘시간 변수’, ‘희미한 정도’는 (라)의 실험에서 타당한 변수이지만, 상황이 다른 면접에서도 동일하게 타당한 변수로 적용 될 수 있을까요? 이 문제에서는 두 변수를 일반화 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파악하고, 일반화 한 변수를 면접에 적용하는 것이지 ‘기계적으로’ 다른 상황인 전제를 무시하고 적용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.
3. 2번 지적과 같은 문제는 1번 지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대로 된 표 분석이 존재하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에요.
4. 따라서 제대로 된 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, 표의 실험과 면접의 상황을 동일시하는 오류가 발생했네요. 그럼에도, 제시문에 기반하여 답안을 서술하려는 노력은 좋아 보입니다 :)